

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농업정책

- 증산의 담보는 다수확우량종자(조선신보, 1.15)
 - 농업증산의 열쇠는 종자혁명방침을 확실히 실시하는데 있음.
 - 지난해 북한의 기후풍토에 맞는 논벼종자와 강냉이종자를 비롯한 다수확우량종자를 충분히 확보해 놓아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면적에 파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확보된 다수확우량종자는 각지 농장의 수요에 따라 공급될 것임.
 - 지난해 생산한 종자를 정선하고 보관하였다가 전국의 국영 및 협동농장에 공급하는 준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과 인민생활향상 (로동신문 1.20)
 - 김정일은 “우리 당의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우리 농업을 현대화, 과학화 해 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해야 한다”고 했음.
 - 기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 있음. 첫째,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 하여야 인민들의 먹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 때문에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물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생활을 위한 농업혁명방침 관철에 나서야 함.
 - 둘째, 농업부문의 발전은 농산을 비롯하여 축산, 양어, 과수업, 잠업 등을 다 같이 발전시킬 때 이루어지며 그렇게 되어야 인민생활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 셋째, 당의 농업방침은 알곡 생산뿐만 아니라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4. 축 산

○ 최고생산수준을 기록하기 위한 열정(로동신문 1.19)

- 김정일은 “나라를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을 중시하고 과학발전을 앞세워야 한다”라고 말함.
- 현대화된 축산기지들에서 최고생산 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종축 생산을 확고한 과학적토대위에 올려 세워 육성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 있음.
- 사리원 돼지농장과 사리원 닭공장, 평양시안의 만경대닭공장과 룡성닭공장, 서포닭공장, 두단오리공장 등 현대화된 모든 공장에서는 과학적인 수의방역체계를 엄격히 세워 년 초부터 고기와 알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토지정리

○ 그날의 원대한 구상 현실로 꽃피나는 영광의 대지(로동신문 1.28)

- 김정일은 “당의 방침대로 토지정리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논벼 정보당 수확고가 토지가 정리되기 전보다 더 증가한 것은 물론 실정에 맞는 두벌농사 방법이 도입됨.
-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에서 포전마다 수십 톤의 질 좋은 거름을 내고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에서 기적을 창조함.

7. 기타 보도 동향

□ 과수

○ <평양산과일가공제품>, 4월에 첫 출하(조선신보, 1.18)

-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사과를 기본으로 하면서 배, 추리, 복숭아, 양벚 등 여러 가지 과일 20여 종을 생산함.
-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과일나무의 밀식재배, 과일생산 집약화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
- 질 좋은 퇴비를 뿌리고 과일나무 묘목을 정성껏 심은 결과 묘목을 심은지 6개월만에 알당 평균 400g, 최고 550g의 사과를 수확하였음.
- 종합적인 과일가공공장에서는 과일말린, 잼, 단물 등 과일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

음. 이곳 농장에서 생산된 과일은 평양시의 보통강상점을 비롯한 봉사망을 통해 인민들에게 공급됨.

○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로동신문 1.19)

- 김정일은 “과수업을 더 발전시켜 근로자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고 말함
- 또한 김정일은 과수원에 질 좋은 거름을 많이 내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다고 지도하였으며, 모든 과수원에 더 많은 질 좋은 거름을 실어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의 실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함.
- 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모든 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라는 구호 하에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음.

○ 《청춘과원》을 늘여간다(로동신문 1.22)

- 김정일은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배우고 또 배워 최신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자기 부문 과학기술에 정통한 실력가로 당과 조국의 유능한 과학기술역군이 되어야 하며, 정렬적인 탐구와 높은 실력, 과학적 양심으로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함.
- 과학수확연구소의 일꾼들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제공하고 우량품종의 과일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 사업에 열중하고 있음.
- 연구소에서는 사과, 살구, 복숭아, 밤, 포도 등 여러 품종을 새로 육성해 냈으며 밤 종자를 쓰지 않으면서 밤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게 하였음.
- 과학자들의 진취적인 연구사업기풍으로 농업생산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온 나라의 과수원들을 《청춘과원》으로 더 빨리 발전시켜야 함.

○ 청춘과원에 나래치는 전투적기상(로동신문 1.29)

- 김정일은 “우리는 나라의 과수업 발전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후대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사회주의 무릉도원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말함.
- 각지 과수농장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거름생산과 가지자르기를 비롯한 당면한 영농작업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5배 이상 오름.
- 올해 과일생산에서 비약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각지 과수농장에서는 모든 노동력을 거름 생산과 실어내기에 총동원, 총집중하여 그 실적을 계속 높여가고 있음.
- 올해 과일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과일나무가지자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는데서 찾고 이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농기계 농기계 가동률을 높일 목표(로동신문 1.21)

- 김정일은 “미루벌에서 농사를 제철에 잘 짓게 하기 위하여서는 결정적으로 기계화를 하여야 한다”고 말함.
- 룡현협동농장 기계화 작업반 수리공들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노력 끝에 일부 부분품의 수리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농기계의 수리정비시간을 훨씬 단축 시킴.
- 또한 변속 장치를 개조하여 트랙터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기름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였으며 연결차수리를 자체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창안해 냄.

 비료 거름실어내기에 모든 힘을 집중(로동신문 1.19)

- 김정일은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해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함.
- 평원군, 숙천군, 문덕군을 비롯한 도안의 각 군에서는 첫 전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거름실어내기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3배의 거름을 실어내는 혁신을 일으킴.
- 다른 도들의 농업근로자들도 10월의 광장에 몇몇이 들어설 열의에 넘쳐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협동벌에 내려치는 혁신의 기상(로동신문 1.25)

- 김정일은 “균중적 운동으로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땅을 갈아야 한다”고 말함
- 10여만 톤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본원료인 니탄캐기와 부식토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작업장마다 열풍이 일기 시작하자 군안의 농업부문 기술자들은 흙보산비료 생산의 성과여부가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 생각하에 서로 힘을 합쳐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음.
- 이 결과 20여 일 동안에 100만 톤의 거름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둠.